

權敦仁의 『彝阮尺辭』 연구*

강혜선**

1. 머리말
2. 『이완척사』의 내용과 작문의 정황
3. 『이완척사』를 통해 본 권돈인과 김정희의 교유 양상
4. 척독소품으로서의 『이완척사』의 특징
5. 결론

<국문초록>

金正喜와 權敦仁의 편지를 함께 수록한 책으로 그동안 알려져 온 『彝阮尺辭』(일본 東洋文庫 소장)는 사실, 권돈인이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 13편을 필사해 놓은 책이다. 권돈인은 19세기 정치사뿐 아니라 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의 문집 『彝齋集』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주변 인물들, 특히 김정희의 전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명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완척사』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먼저, 김정희와의 교유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완척사』의 편지들을 검토해 보았다. 김정희가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들과 대조해 가면서 작문의 정황을 살핀 결과, 13편의 편지는 김정희의 제주 유배기에서 해배 이후의 시기에 걸쳐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권돈인의 서울 번동의 玉笛山房과 김정희의 제주 유배지 사이를 오고간 교유, 권돈인의 퇴촌 별서와 김정희의

*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전기 특별과제로 이루어졌음.

**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과천 집을 오고간 교유, 그리고 古器, 金石, 圖書, 書畫의 감정과 고증, 감상과 비평 등으로 나타나는 교유의 양상을 편지를 통해 드러내었다.

다음으로 小品 尺牘의 측면에서 『이완척사』의 편지들을 분석해 보았다. 권돈인은 17, 18세기에 성행한 척독을 계승하여, 개성 있는 편지를 창작해 내었다. 13편의 편지는 일정한 격식이나 관례적 어법을 벗어나,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밀한 상대에게 일상의 淺近한 이야기를 서정적, 심미적으로 써내는 척독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서신의 투식을 생략한 개성적인 서투의 모습, 자신의 생활과 심경을 구체적으로 형용하기 위해 구사한 일상 언어의 모습, 곡진한 서정 진술과 서정적 정경 묘사를 통해 형상화된 우정의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핵심어: 권돈인, 이완척사, 김정희, 교유, 척독, 우정

1. 머리말

일본 東洋文庫 소장의 『彝阮尺辭』는 權敦仁(1783-1859)이 金正喜(1786-1856)에게 보낸 尺牘 13편을 필사한 책이다. 책 제목의 彝阮은 권돈인의 호인 彝齋와 김정희의 호인 阮堂을 합쳐 명명한 것이며, 尺辭는 척독을 이른다. 필사 시기와 필사자는 미상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김정희와 권돈인의 편지를 함께 수록한 것이라 알려져 왔지만, 매 편지를 읽어보면 13편 모두 권돈인이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다.¹⁾

권돈인은 19세기의 정치사뿐 아니라 문화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 그가 쓴 글들은 관찬사료에 전제된 上疏, 疏筭類 등을 볼 수 있을 뿐이다. 『安東權氏大同世譜』 권30에 의하면, 권돈인은 『彝齋集』 27권을 남겼다고 하지만 현재 유실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완

1) 본인은 원전에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수행한 일본 동양문고소장 자료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처음 접하였다. 기존에 권돈인과 김정희의 편지들로 서지사항이 알려져 있던 『이완척사』를 해제를 통해 권돈인이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임을 밝혔다. 해제에서 간략하게 편지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완척사』는 그 자료적 가치가 해제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척사』는 권돈인이 쓴 것이 분명한 척독집으로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권돈인 연구의 일차적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권돈인은 본관이 安東으로 우의정을 지낸 權尙夏의 5대손이며, 군수를 지낸 權中緝의 아들이다. 자는 景羲, 호는 彝齋·又閔·又髡·樊上村庄 또는 瓜地草堂老人이고, 시호는 文獻이다. 1813년(순조 13)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자와 헌납을 거쳐, 1819년과 1835년(헌종 2)에 동지사의 서장관과 진하 겸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권돈인은 호조판서를 제외한 6조의 판서 직을 두루 거친 뒤 1842년(헌종 8) 우의정에 발탁되고 1845년에 영의정에 오르는 등 약 8년 동안 헌종을 보좌하며 국정운영의 핵심을 담당하였다. 1851년 철종의 증조인 眞宗의 祧遷禮에 관한 주장으로 인해 파직당하고 순흥으로 유배되었다. 1859년 연산으로 이배되었다가 그곳에서 76세로 일생을 마쳤다.²⁾

권돈인은 김정희, 趙寅永 등과 교류하면서 宋學에 머물지 않고, 당시 폄미하던 청조 학술인 고증학, 금석학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서화에 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김정희와 일생 동안 친밀히 교류하였다. 김정희는 권돈인이 뜻과 생각이 뛰어나다 평하였고, 특히 그의 예서체 비문은 동국에 전혀 없었던 神畵의 경지라 칭찬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중국의 서화를 얻으면 함께 연구하여 감식안을 높이기도 하였다. 현재 권돈인의 유작으로 <歲寒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와 여러 편의 글씨가 전하고 있다.³⁾

『이완척사』는 무엇보다도 권돈인이 일평생 절친하게 교류한 김정희에게 보낸 척독을 모은 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하다. 여기에 실린 13편은 권돈인과 김정희가 나눈 교유의 양상과 우정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19세기 예술문화의 사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13편은 17, 18세기에 성행하였던 서정적 척독의 문체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19세기 척독의 특징을 살피는 데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

2) 김명숙, 『彝齋 權敦仁(1783-1859)의 정치활동과 정치론』, 『韓國思想과 文化』 제3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이 논문에서 권돈인의 정치적 행적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3) 권돈인의 유작들을 간략하게 일별한 논문으로 권혁룡, 『彝齋 權敦仁의 作品 研究』(수원대학교 석사논문, 2010)가 있다.

2. 『이완척사』의 내용과 작문의 정황

『이완척사』는 1장-b면 첫 행에 “彞阮尺辭”라고 적혀 있는 題가 있고, 바로 이어서 둘째 행부터 척독이 시작된다. 매 척독이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행갈이를 하였고, 총 13편이 수록되어 있다.⁴⁾ 발신자의 신분이나 거주 상황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樊溪, 樊郊, 樊上(권돈인의 별장이 있던 서울의 번동 집을 이름) 등이 언급되어 있고, 수신자의 거주 정황으로 제주도 유배지나 북청 유배지, 과천 등을 언급하고 있어, 여기에 수록된 척독들이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절부터 해배 후 시기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는 편지들임을 알 수 있다.

각 편지의 대략적 내용을 통해 작문의 정황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은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 간 지 6년째 되던 해인 1846년 봄에 권돈인이 쓴 편지이다. 헤어져 그리워하는 심정과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김정희의 해배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2)는 김정희의 아내(후취 예안 이씨를 이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42년에 쓴 편지이다. 김정희의 하인 鳳鎭에게서 상여가 예산을 향하고 있음을 들었다고 전하면서, 애절한 위로의 말과 함께 건강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3)은 권돈인이 정계에서 잠시 물러난 시기에 쓴 편지로, 산수 간에 들어가 번동 別墅의 書樓와 같은 제도로 새로 서루를 세웠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때 김정희는 과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는 白雨雪紙 3본을 보내니, 새 정자에 걸 편액으로 ‘秋水樓’ 또는 ‘水明樓’를 써서 보내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5)는 臘月 이후로 가래와 기침이 심했던 자신의 근황과 봄이 온 광경을 전하는 내용이다. (6)은 牙海(아산을 이르는 뜻)에서 돌아온 뒤 김정희가 소개해 보낸 雲句라는 승려를 만나지 못한 사정을 전하는 내용이다. 『완당집』권3에 수록된 21번째 편지 말미를 보면, 김정희가 ‘스스로 운구라 호칭하는 승려 한민’을 권돈인에게 소개하는 서신이 첨부되어 있다.

4) 본서에 실린 척독을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첫 구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去年八月九月』, 2『夜經急癘』, 3『歲暮以後』, 4『新亭尙無一遍』, 5『潑永流光』, 6『去十六自牙海歸』, 7『林紅礪綠』, 8『數朔阻思甚於南涯』, 9『江春已發』, 10『別後年光冉冉』, 11『恰相阻截』, 12『頃復仰丐』, 13『近日甚欲函走』.

4월에 날씨가 좋을 때 서로 내왕하자는 것으로 보아, 김정희가 해배된 이후의 편지로 보인다. 또한, 이 편지에는 권돈인이 『吳郡名賢圖傳贊』을 모사해 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다. (7)은 김명희로부터 자세한 소식을 들었다 하며, 기침은 좀 나아졌는지 묻고 자신은 가을 숲에서 안식하고 있는 정황을 전하고 있다. 이 편지는 권돈인의 골동, 고종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女坊草라 하는 기와 두 개를 찾아낸 사연과 고증하는 내용이 그 사례이다. (8)은 그의 나이 70세인 1851년 겨울에 보낸 편지로, 이때 김정희는 권돈인의 眞宗祧遷禮論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北靑에 유배되어 있었다. (9)는 봄이 오고도 수십 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몹시 기다리며 그리워함을 전하고, 김명희와 김상희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은 병중으로 ‘苦海緣業’이라 전하는 내용이다. (10)은 매화 세 그루는 모두 얼려 죽었지만, 창 아래 수선화가 만발해 있는 광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편지이다. 이 편지에는 또한 김정희가 보낸 ‘品泉帖’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 이는 김정희가 권돈인에게 보낸 21번째 편지에 보이는 ‘品泉一紙’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장으로 보인다. 또한 이 편지에서 권돈인의 불경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다. (11)은 김명희와 김상희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후사를 정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있다. (12)는 김정희의 편지를 고대하며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내용이다. (13)은 지난 10일 비로소 營關을 보았고 다음날 북쪽을 향해 가 여러 날 머물러 梓里에서 성묘를 하고 退村의 僑舍에 이른 여정을 전하고 있다.

3. 『이완척사』를 통해 본 권돈인과 김정희의 교류 양상

『완당전집』 제3권에는 김정희가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가 35편(여기에는 상당 수 중복된 편지도 있다) 수록되어 있다.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현재 남아 전하는 편지보다 훨씬 더 많은 편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권돈인에게 쓴 김정희의 편지 중 상당수가 제주 유배시절에 쓴 것이고, 『이완척사』에 전하는 편지 중 여러 편이 역시 제주에 유배가 있는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또 김정희가 제주에서 해배된 이후

의 편지로 보이는 편지들 중에서 서로 주고받은 답장에 해당하는 경우도 보인다. 점에서 『이완척사』의 13편의 편지를 『완당전집』의 35편의 편지와 면밀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완척사』를 통해서, 김정희의 글을 통해 살폈던 두 사람의 교유 양상에 덧붙여 보다 다채롭게 두 사람의 교유 양상을 볼 수가 있다. 권돈인의 편지에는, 김정희를 염려하고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이 다정다감하게 펼쳐져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당대 서화와 금석 등에 대한 감상, 비평의 양상이 구체화되어 있다.

3.1. 번동의 玉笛山房과 제주를 오고간 교유

권돈인의 한평생은 사환의 길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가 김정희에게 쓴 편지나 그가 사귀었던 문인들이 남긴 글 속에서 드러난 권돈인은 전원에서 서화 감상과 비평에 몰두하는 문인이자 화가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권돈인이 사환의 사이사이 물러나 지낸 곳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곳이 樊溪의 별서이다. 『이완척사』에는 이곳에서 김정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나 이곳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종종 보인다. 자신을 ‘樊溪人’(1번 편지)으로 지칭하거나 김정희의 편지를 樊溪에서 받아보았다는 언급(2번 편지) 등이 그러한 예이다.

번교의 별서는 이름이 玉笛山房이었다. 趙寅永의 <玉笛山房上樑文>에는 다음과 같이 그 곳이 묘사되어 있다.

생각건대, 십리의 푸른 들판에 푸른 냇물 한 구역, 복지동천이 빼어나고도 그 옥하도다. 숲은 환하면서도 성글고, 돌은 평평하면서도 깨끗하다. 두건 쓰고 짚신 신고 걷기에 어울리고, 시를 읊고 휘파람 불기에 마땅하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도 좋고 물길을 따라가도 좋고, 산길을 걸어 올라가도 좋고 덩굴을 더위잡고 올라가도 좋구나. 어지러운 풀 순식간에 치워내고 별서를 지어내어 그 가운데 완연히 거처를 잡았으니 이곳이 상국 이재공이 번천에 새로 지은 옥적산 방이라.(하략)⁵⁾

5) 『雲石遺稿』, 권11, <玉笛山房上樑文> “伏以十里青郊, 一區碧澗, 洞天福地, 既秀且幽, 林曠而疎, 石平而潔, 宜巾宜屨, 宜吟宜嘯, 可澗可沿, 可陟可攀, 續緜忽而載營, 宛中央而爰處, 此相

서울의 번동 들판에 자리 잡은 옥적산방의 형세와 경관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인영은 이어서 옥적산방의 명칭을 언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옥적산방은 김해에서 출토한 고악기 옥적이 소장되어 있어서 부처진 이름이었다. 또한 조인영에 의하면, 이 별서에는 金石圖書가 쌓여 있었다.⁶⁾ 趙斗淳 또한 옥적산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문을 남겼다.

상국 이제 권공의 번동 들판의 집은 비스듬히 서쪽으로 뻗다가 조금 치솟은 산들이 모인 곳에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처를 삼고서 옥적산방이라 하였다. 피리는 수로왕의 옛 수도(김해)의 암혈에서 출토한 것으로 공이 가장 보배로 삼는 것이었다. 당이 완성되자 마침내 명하여 그것을 기록하였다. 이른바 그윽하고 빼어난 골짜기는 고상하고 기묘한 古器와 짝을 이룰 만하였다.(하략)⁷⁾

조인영과 조두순의 글에서 보듯이 권돈인의 옥적산방에는 古器, 金石, 圖書, 書畫가 소장되어 있는 곳이었고, 바로 이곳에서 권돈인은 김정희를 비롯하여 김유근, 조인영 형제 등과 교류하였다.⁸⁾

김정희가 권돈인에게 쓴 19번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바람 불고 과도치는 때에 옥적산방이 마치 十洲三山과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흐르는 물을 배개 삼고 돌로 양치질을 하는 그곳에 가서 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雲煙을 한껏 즐기게 될 줄을 어찌 감히 스스로 헤아렸겠습니까? 비록 두이 다 머리는 희고 얼굴은 쭈글쭈글하여 다시 천리마처럼 盛壯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國彝齋公樊泉新築之玉笛山房也.”

6) 김정희의 32번째 편지에도 역시 이 옥적을 언급한 바 있다.

7) 『心庵遺稿』, 권29, <玉笛山房記> “相國彝齋權公, 就樊郊之第, 迤西稍嶺之會, 爲涼澳之居, 而曰玉笛山房. 笛出首露故都巖穴中, 爲公最自珍, 堂成遂命而志之, 謂洞天幽勝, 足以配古器之高妙也.”

8) 이 옥적산방에는 왕희지의 山陰의 蘭亭을 본떠서 又一蘭亭이라는 작은 정자도 있었다.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又一蘭亭帖>에 의하면, “성곽 동쪽 10리 번계에 작은 정자를 두었다. 정자의 서쪽 10여 걸음쯤 되는 곳이 폭 파여서 작은 골짜기를 이루고 시내의 맑고 돌은 희었다. 검푸른 색의 작은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을 마주보고 서너 개의 흠을 세운 듯 작은 샅갓 모양 지붕을 올린 정자를 엮었다. 편액을 달기를 ‘우일란정’이라 하고, 먼저 小山(篆刻의 대가 吳圭—을 이름)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蘭叟가 또 기록한다.(郭東十里樊溪, 寘小亭, 亭西十餘武, 凹作小洞, 溪清而石白, 有小壁, 紺綠色, 對面擬構三數笏, 一笠亭榭, 扁之曰又一蘭亭, 先使小山知之, 蘭叟又識.)” 라 하였다. 이상은 권혁룡, 앞의 논문, 108면에 제시된 도판을 이용하였다.

우러러보건대 龍馬 같은 정신이 왕성하고도 견고하심이 또 비박한 위인의 여지 없이 쇠퇴해진 모습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기뻐하여 축하하였고 여러 날 동안 기분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중략) 삼가 듣건대, 산중에는 붉고 푸른 온갖 경치가 그득하다 하니, 궁둥이가 절로 들썩거리려집니다. 그러나 다만 동서로 거리낌이 많아서 옛날의 맹약을 추급하여 이루지 못하고 전일의 꿈을 잇기가 어렵습니다.9)

위 글을 읽어 보면, 김정희가 옥적산방으로 찾아가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고서화를 감상하고 비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옥적산방에서 김정희는 권돈인이 소장한 <雲從山水> 족자 그림을 함께 정정하고 題詩를 썼고10), 옥적산방에 소장되어 있는 청의 高其佩와 夢禪畫의 그림에 제발을 쓰기도 하였다.11) 이제, 『이완척사』에 나타나 있는 옥적산방 관련 대목을 들어 본다.

【이완 2번】시월 초에 樊郊에서 그대가 보내준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종이에 적힌 자획으로 또한 그때(김정희가 편지를 쓰던 때)를 아울러 헤아렸지요. 마침 속객이 찾아와 짐짓 소매에 넣어가 소나무 아래 바위에 걸터앉아 물가에서 술 한 잔 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니, 아아! 누구와 함께 이런 고충을 말하겠습니까? 聖民12)이 다만 곁에 있다가 눈물을 흘리니 이 사람의 심정을 또한 알 만하지요.

9) 고전번역원, 『완당전집』 권35, 19번째 편지. 이하 인용하는 김정희의 편지는 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르되, 출전은 생략하기로 한다.

10) 『완당전집』 제6권, 제발(題跋), <이제가 소장한 운종산수정에 제하다(題蘇齋所藏雲從山水幀)> “이 그림은 곧장 대치를 따르고 자기의 뜻은 쓰지 아니하여 모발이 다 같은 것이 마치 당인(唐人)이 모한 진첩(晉帖)과 같다. 소·황·미·채(蘇黃米蔡)도 오히려 당모에 비하여 일주(一籌)가 모자라는 것은 그것이 진적(真迹)과 한 등만 낮은 까닭이라. 옥적산방(玉籟山房)에서 중구일(重九日)에 완당은 이제와 더불어 함께 정정하고 인하여 제하다.”라 하였다.

11) 『완당전집』 제6권, 제발(題跋), <고기괘의 지두화 후에 제하다(題高其佩指頭畫後)> 참조. 또한, 25번째 편지에서 김정희는 이씨(李氏) 화권(畫卷)의 선염법(渲染法)을 논하면서 “산방(山房)의 설계(雪几)에서와 같이 마주 앉아 평정(評訂)할 길이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라 하여 두 사람이 옥적산방에서 서화의 감상과 비평을 활발히 나눈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2) 김정희가 권돈인에게 보낸 32번째 편지에 성민이 보인다. 여기서 김정희는 권돈인이 소장한 박, 김해에서 출토한 신라의 악기 玉笛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적(古笛)에는 십이율(十二律)의 적(笛)이 각기 있으니, 이는 반드시 지금의 적과 같이 않을 것입니다. 칠공통(七孔笛)만 뚫려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성민(聖民) 등으로 하여금 그 중 어느 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율과 성은 특히 서로 다르니, 율은 곧 황종(黃鐘)·대려(大呂) 등 십이율이요, 성은 곧 궁(宮)·상(商) 등 오성(五聲)입니다. 이 때문에 황종의 궁(宮)과

(十月初, 惠書承於在樊郊時, 字畫諸紙, 亦并領其時, 適有塵客, 故袖而松下據石, 一酌臨流雪涕, 蹉乎, 孰與說此苦衷? 聖民獨在傍流涕, 人情亦可見也.)

【이완 8번】몇 달 동안 막힌 그리움이 남쪽 끝과 북쪽 끝으로 나뉘는 때보다 심하고, 꿈속에서조차 막혀 하루도 사람을 급히 보내고 싶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절후를 살펴보니 인생에 번뇌 아닌 것이 없어서, 병과 근심이 사람을 망치고 생각이 사람을 채웁니다. 그러니 또한 몸도 마음도 겨를 없이 입으로 잠꼬대하듯이 혼잣말을 하는 중에 문득 그대의 서찰을 받으니 그대의 얼굴과 정신이 필묵을 비추어 흡사 저 번산에서 눈 온 뒤 팔을 부여잡고 숲으로 들어가 샘물과 차에 대한 품평으로 한바탕 떠들다가 돌아오던 때 같군요.(數朔阻思, 甚於南涯北角, 夢魂阻無日不欲走人, 探節而人生無非煩惱, 病憂敗人, 意思實人, 亦不暇身, 亦不暇心, 口相語如夢囈囈, 忽伏承端札, 顏髮精華, 照映毫墨, 恰似樊山雪後, 把臂入林, 品泉評茶, 劇譚一廻也.)

위 2번은 제주 유배지에서 김정희가 보낸 편지를 번교의 별서에서 받아 본 정황을 담고 있다. 편지에 남은 김정희의 필획을 벗인 양 보는 모습이, 또 찾아온 속객(조정의 관료로 예상됨)을 피해 소매에 넣어가 혼자 소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 술 한 잔 하면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정경이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8번은 권돈인의 나이 70세 쓴 것으로, 이때 김정희는 자신으로 인해 북청에 유배가 있는 처지였다. 몇 달이 지나도록 김정희의 편지를 받지 못하여 간절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차에 벗의 서찰을 받고 보니, 서찰에 남은 필묵에 벗의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듯하다 하였다. 그리고서 매우 서정적인 어조로 번교의 눈 오는 어느 날 두 사람이 팔을 잡고 숲으로 들어가 샘물 맛을 품평하고 차를 품평하는 때를 추억하였다.¹³⁾ 이런 장면을 통해 권돈인과 김정희가 번교의 옥적산방에서 나는 교유의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김정희는 제주도 대정에 도착한 뒤 권돈인에게 부친 편지에서 “천

대리의 상(商)이 서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민이 또한 이런 묘리를 깊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험 삼아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라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성민은 악공으로 보인다.

13) 김정희의 17번째 편지에, 김정희는 勝雪에 버금가는 좋은 차를 지리산 산승에게서 얻어 맛본 뒤 이를 권돈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글씨와 교환해서 차를 구하겠다는 사연을 남긴바, 두 사람이 차에 대한 품평을 함께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 만인이 모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만이 유독 나를 불쌍히 여긴다(千萬人皆欲殺之, 一人獨憐之)”라 말할 정도로 김정희에게 서울의 권돈인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김정희가 1840년(55세)부터 1848년까지 9년간 제주에서 유배를 사는 동안, 권돈인은 판서를 거쳐 우의정, 영의정에 이르며 국정운영의 핵심을 담당하였다.¹⁴⁾ 이런 상반된 상황과 처지에서도 두 사람의 교류는 단절되지 않았다. 김정희는 위리안치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호소하는가 하면, 제주에서 새롭게 접한 풍광과 산물을 소개하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었다.¹⁵⁾ 권돈인은 김정희를 염려하고 위로하는 편지와 함께 인삼과 연초, 藥料뿐 아니라 扇箋과 筆墨 등 각종 선물과 서화를 보내주었다. 권돈인이 제주 유배지의 김정희에게 보낸 서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이 小癡 許維가 그린 <東坡笠屐圖>이다. 이 그림은 권돈인이 김정희의 제자이자 자신의 문객인 허유로 하여금 그리게 하고, 거기에 스스로 題品을 써서 보내었다. 김정희는 이 그림을 자리 옆에 걸어 두고 감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¹⁶⁾

14) 권돈인은 1843년에 우의정에, 1844년에는 좌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했다가 다시 좌의정이 되었으며, 1845년에는 영의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6월에 사직하였다가 11월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권돈인은 이와 같이 사직과 재임을 1848년까지 이어가다가 1849년에는 원상이 되었다.

15) 예컨대 제주에 지천으로 자라는 수선화를 소개하였는가 하면, 서울에서 본 것과 다른 奇品의 千葉(벚꽃의 일종이거나 동백의 일종)을 찾아내어 뿌리를 골라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16) 김정희의 24번째 편지에 그 사연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추석일에 삼가 7월 16일에 내린 서신을 받고 보니, 겨울 1개월 전인 근일의 소식이라서 기쁘기가 소망에 넘칩니다. <笠屐圖>는 神采가 번쩍번쩍 빛나고 또 觀聽와 硯背 이외에 별도로 一副의 真相을 옮겨 놓았는데, 水月の 나뉘인 影像이 백억 가지로 변환하여 廬山の 八萬偈가 이 無盡藏 속에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상면에 합하께서 쓰신 題品은 완연히 蘇齋의 神髓라고 할 만하니, 이 종이가 천하에 절묘하기가 다만 일개 龍眠의 盤石·藤枝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癡의 필력이 비록 스스로 創意한 것이 아니라서 眞跡보다 한 등급이 낮기는 하나, 당 나라 사람들이 쫓 나라 때의 法帖을 모사한 것에는 조금도 못하지 않으니, 座隅에 걸어두고 날로 곁에서 모시기를 마치 西陲의 고사와 같이 하겠습니까. 이 험난한 유배지에서 이렇게 淸淨한 法緣을 얻게 되었으니, 합하께서 眷注해 주신 은덕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김정희는 24세 때 생부 金魯敬을 따라 燕京에 갔을 때, 당대의 巨儒 翁方剛·阮元 등과 교우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翁方剛은 소식의 像 3폭을 그의 寶蘇齋에 봉안하고 소식의 생일에는 東坡書帖 등을 진설하고 祭를 지냈다고 한다. 김정희는 그런 翁方剛의 영향을 받아 후에 吳歷이 1864년에 그린 <東坡笠屐圖>를 얻어 직접 모사하고 題贊을 하였다고 한다. 바로 김정희의 그 그림을 허유가 그대로 모사를 하였고, 거기에 권돈인이 제찬을 남긴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권돈인과 김정희는 최고 관직의 벼슬아치와 유배죄인이라는 대조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남다른 우정을 편지를 통해 나누었다.

3.2. 퇴촌 별서와 과천을 오고간 교류

『이완척사』에는 권돈인의 거주지로 번계의 별서 외에 퇴촌의 별서라 짐작되는 곳이 등장한다. 다음에 보이는 4번은 새로 마련한 정자에 편액이 없으면서 김정희에게 편액으로 삼을 글씨를 요청한 사연을 담고 있다.

【이완 4번】새 정자에 아직 편액 하나 없는데, 요사이 청할 수 있는 인편이 없었습니다. 당의 편액은 반드시 그 장소의 마땅한 바를 따라서 짓는데 옛 사람도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못했으니 또한 풍속입니다. 모두 그대가 좋아하는 바를 좇아 혹 두 자나 세 자, 네다섯 자로 하되 예서나 초서나 마음 가는 대로 휘둘러 쓰십시오. 만약 부칠 수 있다면 이번 회답 편에 부쳐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요. 마음 갈 때나 편한 때나 모두 좋습니다. 연전에 어떤 역관이 글씨를 잘 쓴다고 일컬어지는 북경의 한 선비에게서 편액 하나를 받아 와 주었습니다. 서법은 과연 새길 만하였는데 편액 이름을 ‘秋水樓라 하였는데 또한 처마에 걸 만하였지요. 그런데 글자가 꽤 커서 작은 처마에는 들어맞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추수루나 혹 ‘水明樓로 한 본을 써서 보내주면 강가에 위치한 누대의 처마에 달 수 있겠지요? 재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白雨雪紙 세 본을 부쳐 보내니, 반 폭을 가로로 자른다면 기둥의 주련에 쓰는 종이만할 것입니다. 글자 수대로 가로로 쓰시면 글자의 크기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편액의 이름이라도 부쳐주길 청합니다. 호는 본래 정한 것이 없으니 모두 그대가 혼자 짓고 혼자 쓰는 것만 같은 것이 없습니다. 부디 헤량해 주십시오.(新亭尙無一編, 間無便可以仰請也. 堂額之必隨其所宜而題之, 古人未必然, 且俗也. 皆從吾兄所好, 或二字三字四五字, 以隸以真草, 隨意揮灑, 若可以付, 此回付之, 不然, 有何急哉? 隨意隨便, 俱好. 年前有一譯, 受來燕土之稱以善書, 一編贈之, 書法則果可堪刻, 額曰秋水樓, 亦足揭楣, 而字稍大, 難容小楣, 若以秋水樓, 或水明樓, 書一本送之, 則可以於樓之臨江正楣耶? 唯裁處之耳. 白雨雪紙三本付送, 若橫破半幅, 如楹聯紙, 而從其字數, 而橫寫之, 則字大小可合矣. 必以不錄, 寄一編號字爲請, 號本無定, 都不如兄之自製自寫, 千諒之.)

위 글에 의하면, 새 정자는 강가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으니, 퇴촌의 별서

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권돈인은 중국에 다녀온 역관으로부터 북경의 명필을 얻었으나 글씨가 너무 커서 편액으로 걸 수가 없다는 사정과 함께 강가의 정자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秋水樓’나 ‘水明樓’를 써주면 어떤가 타진하였다. 또 그 글이 아니라면 김정희가 마음대로 다른 글을 써주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의 편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김정희의 편지로, 김정희가 북청에서 해배되어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쓴 것으로 보이는 27번째 편지이다. 그 편지에서 김정희는 “天機의 자연 속에 이리저리 소요하신다 하니 그곳이 저 번상의 땅과 서로 백중지세일 듯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곳의 샘물 맛은 어떻습니까?”라 하였다.¹⁷⁾ 이어서 김정희는 “退村 두 큰 隸字는 팔을 억지로 놀려 써서 바치오니,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필획의 사이에 屈伸의 뜻을 부쳤으니, 허여해 주시고 工拙을 또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아마도 김정희는 위에서 본 바, 퇴촌의 별서에 걸 편액 글씨를 요청받아서 권돈인이 보낸 백우설지에 ‘퇴촌’ 두 글자를 크게 예서로 써서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권돈인이 자신의 樓亭에 달 편액을 위해 글씨를 구한 사연은 퇴촌 별서 이전에도 있었다. 권돈인은 번동의 별서와 퇴촌 별서 외에 일찍이 고향 청풍에 綠意軒을 경영하였다. 신위는 <綠意吟詩圖, 爲彝齋尙書作 三首>라는 詩題 아래 권돈인의 기문을 다음과 같이 전재해 놓았다.

이 ‘녹의헌’은 황산(김유근)이 손수 썼는데 내가 취하여 호로 삼았다. 을미년(1835) 5월의 밤 내가 막 자려는데 황산이 “맑은 산 빛은 집에 가득하고, 푸른 나무는 문을 가리네(山光晴滿屋, 樹意綠遮門)”라는 시를 보내왔다. 대개 처음에는 나를 위해 지은 것이 아니었지만 우연히 상자에 넣어 내게 보냈기에 감상하였다. 나는 고상한 시운을 사랑하여 벽 머리에 펼쳐 두었는데, 시랑 신자하(신위)가 찾아왔다가 그것을 보고는 “山光晴滿屋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樹意綠遮門은 옛 사람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 자하는 안목을 갖추었으니 이는 헛된 논의가 아니다. 그 후 6월에 큰 비가 내리는 중

17) 김정희의 28번째 편지에 보이는 “寫杖의 차림으로 또 仙莊을 나가시면, 땅에는 국화요 하늘에는 단풍이며, 돌은 푸르고 샘물에서는 옥 부딪는 소리가 들린다 하셨습니다.”의 대목도 퇴촌의 별서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에 황산이 또 글씨를 써서 보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바로 ‘綠意軒’ 세 글자였다. 또 필력이 굳세고 예스러운 것을 사랑하여 표구를 하여 벽에 걸어두었는데 바로 앞의 시 위에 위치하였다. 이것 역시 처음에 나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써서 내게 부쳐 보내 감상한 것이었다. 무릇 황산이 내게 시를 부친 것도 처음에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었고, 글자도 처음에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녹의’라 썼지만 역시 반드시 앞의 시구 ‘綠遮門’ 때문에 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와 글씨가 서로 도모하지 않았는데도 뜻이 마치 서로 펼친 듯하고, 시와 글씨가 또 나의 누헌과 서로 도모하지 않았는데도 앞뒤로 마치 나의 누헌과 슝벽이 된 듯하니 왜인가? 또 자하가 마음속으로 이 한 구절을 감상하니 마치 勝義(절대적 진리) 중의 참된 승의와 같다. 그리고 황산의 손가락 끝 먹의 혼은 특히 절로 이미 안에 간직한 듯 한송이 꽃을 그려내니 이것이 자하가 일찍이 생각지 못했던 바이니, 황산 스스로도 몰랐을 뿐 아니라 일이 도모하지 않았는데 같은 길로 귀착되어 천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취하여 나의 누헌에 이름을 부른 까닭이다. 아아! 나의 집은 청풍의 산중에 있는데 산에는 소나무, 노송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뽕나무, 옷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가 많았다. 강가에는 회나무와 버드나무 수십 그루를 심고, 집 옆에는 덩굴 숲이고, 채소밭에는 이것저것 심었다. (후략) 을미년(1835) 가을 녹의주인이 녹의헌에서 기록한다.¹⁸⁾

신위는 위 기문을 전제한 뒤 세 수의 시를 썼는데, 그 첫 수 아래 “준아(신위의 아들 신경준을 이름)로 하여금 <녹의시음도>를 그리게 하여 이재에 주었다(命準兒作綠意吟詩圖, 以贈彝齋故云)”라 하였다. 또 다음 해(1836년) 신위는 “지난해 내가 이재 상서를 위하여 <녹의시음도>에 제시를 썼는데 이재가 그것을 가지고 연경에 들어가 여러 명사들에게 감상케 하여

18) 『警修堂全藁』, 책23, <綠意吟詩圖, 爲彝齋尙書作 三首> “附彝齋綠意, 轉記, 此綠意軒, 黃山手書, 余取而號之也. 乙未五月之夜, 新月將沉, 余方就睡, 黃山以詩來, 有曰“山光晴滿屋, 樹意綠遮門.” 蓋未始爲余作, 偶成函寄余賞之也, 愛其韻之高, 張之壁額. 申紫霞侍郎過而見之曰“山光晴滿屋, 東人猶可道及, 樹意綠遮門, 非古人不能也.” 紫霞具隻眼, 此不虛論耳. 後六月大雨中, 黃山又以書來, 發函, 乃綠意軒三字也. 又愛其筆力之適古, 裱而張之壁, 正當前詩之顯. 此亦未始爲余作, 偶成而寄余賞之也. 夫黃山之寄余詩, 亦未始爲余作, 而書之曰綠意, 亦未必爲前詩之綠遮門爾也. 然詩與字不相謀而意若相發, 詩與字又與吾軒不相謀, 而前後若爲吾軒合璧何也. 且紫霞之心賞一句, 如勝義中眞勝義, 而黃山之指端墨靈, 特若自己藏內. 拈出一花, 茲紫霞所未曾思議. 亦黃山不自覺已, 事有不謀而同塗, 湊成而天賦, 是余所以取而號吾軒也. 嗟乎! 余家清風山中, 山多松栝楓竹柘漆桃杏, 灑江植以槐柳屢十株, 宅畔叢林, 蔬畦雜藝 --- 綠意主人記于軒中云爾.”

옳은 시편들이 많았다. 내가 또 그 시들에 화답하여 사해의 필묵의 인연을 증명한다”는 제목으로 시 다섯 수를 남겼다.¹⁹⁾

그런데『임하필기』에서는 “山光晴滿屋，樹意綠遮門”의 詩句가 김유근이 신위에게 준 시라 하고, 신위가 <녹의음시도>를 그렸다고 하였는데, 신위가 전제해 놓은 권돈인의 기문과 신위의 기록을 함께 비교해 보면 李裕元의 기술이 착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유원은 그림과 시가 합쳐진 하나의 畫軸에 권돈인이 서문을 쓰고, 김정희와 洪顯周가 말미에 題를 쓰고 낙관을 하였다고 하였다. 또 이유원은 자신이 젊었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²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橫卷(이 횡권의 폭은 원래 장황 전체를 포함하여 9m가 넘는 넓은 폭이었으나, 현재는 일부분만 남아있다.)으로 신위가 권돈인을 위해 쓴 해서 ‘綠意吟詩’, 그 글씨 옆에 김유근이 쓴 행서 ‘綠意軒’이 전한다. ‘爲彝齋書’라는 낙관을 통해 신위가 권돈인을 위해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권돈인은 김정희, 김유근, 신위 등과 서화로 교류하면서, 자신의 별서에 벗들의 시와 글씨, 그림을 구해 예술적 운치를 더하였다.

3.3. 금석, 서화의 비평과 고증

권돈인이 일찍부터 김정희와 교류하며 금석학, 고증학 및 서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권돈인은 1822년(순조 22) 12월 갑산으로 귀양을 갔다가 다음 해 4월에 돌아왔는데, 이때 삼수지방의 풍토와 민물을 매우 자상하게 기술한 <虛川記蹟詩卷>을 남겼다. 여기에 김정희가 발문을 또 남겼다.²¹⁾ 또한 1832년 함경감사로 나갔을 때는, 권돈인은 함흥의 황초령에서 닳고 벗겨진 신라 진흥왕의 비석을 찾아내 탁본을 얻어 와서 『해동금석록』과 『문헌비고』의 오류를 시정한 바 있다.²²⁾ 이후 김정희

19) 『警修堂全藁』, 책24, “去年, 余爲彝齋尙書, 題綠意吟詩圖, 彝齋携入燕, 見賞於諸名士, 多有篇詠, 余又遂和之, 以證四海墨緣, 凡五首.”

20) 『임하필기』 제30권, 『춘명일사(春明逸史)』, <녹의음시도(綠意吟詩圖)>.

21) 『완당전집』 제6권, <권 수찬 돈인 이재의 허친기적 시권의 뒤에 제하다(題權修撰 敦仁 彝齋虛川記蹟詩卷後)> 참조. 진적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858년(권돈인 76세) 권돈인 다시 쓴 발문이 적혀 있다. 이상은 권혁룡, 앞의 논문, 66-67면 참조.

역시 진흥왕비 탁본을 보고서 “一字·一畫과 一地·一官을 모두 자세하게 확증한” 『眞興二碑攷』 한 권을 찬술하였다.(32번 제 편지를 보면, 이 책이 아직은 草稿 상태여서 권돈인에게 보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돈인과 김정희는 금석학, 고증학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서로 나누면서 학문적 교감을 더해 나갔는데, 『이완척사』에서도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완 7번】흙무더기 속에서 기와 두 개를 찾아내었는데 바로 우리나라 풍속에 이른바 ‘여방초’라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기와를 구운 가마터가 있고, 그 꼭대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바로 기와 장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와는 곧 순치 15년(1713)에 만들어진 것으로, 형태가 온전하고 글자의 필법도 좋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오래된 물건이지만 다시 사용할 곳이 없다가 마침 새로 서고의 앞 처마를 수리할 때 이것으로 덮었습니다.(堆中覓得二瓦, 卽東俗所謂女坊草也. 見有燒甕, 印字於其頂, 卽瓦工姓名, 而乃順治十五年造成字, 製形完樸, 而字法亦好, 雖是舊物, 更無舍用處, 新監書庫前簷, 以此蓋覆)

7번의 이 대목은 권돈인이 산에 갔다가 우연히 흙무더기 속에서 오래된 기와 두 개를 찾아낸 사연을 담은 대목이다. 女坊草는 곧 우리나라에서 암키와라 하는 ‘女瓦’를 이르는 말로 보인다. 기와에 새겨진 제작연대와 장인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것을 또 새로 수리하는 서고의 처마에 사용하는 권돈인의 모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금석학, 고증학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정희는 권돈인에게 중국에서 들여온 서화를 비평하고 진위를 감식하는 내용들을 편지에 많이 남겼으며²³⁾, “안석 아래서 직접 對證할 길이 없으므로, 마음이 조급하여 참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 김정희는 권돈인과 한자리에서 서화 비평과 감식을 하고 싶어하였다. 『이완척사』에도 권돈인이 김정희에게 그러한 서화에 대한 비평을 요구하는 사

22) 『완당전집』 제6권, <북수비문 뒤에 제하다(題北狩碑文後)>.

23) 예컨대 동기창의 書軸을 보고 필획을 논하였고, 옹방강의 족자에서 부분적인 위작을 찾아내었으며, 文伯仁의 그림이 진작임을 감식하였다. 또, 황공망의 <天池石壁圖> 모사본에 대한 비평, 동기창의 書卷 모사본에 대한 감식, 朱翬의 그림과 劉珏의 <山館圖>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기도 하였다. 沈周의 그림, 王翬의 <學海圖> 등도 감정하였다.

례가 있다.

【이완 6번】『오군도전찬』은 겨우 160인을 초록하였는데 동기창을 첫머리로 삼았습니다. 석추로 하여금 그 초상화를 모사하게 하고 소전은 제가 늙은 손으로 직접 베껴 장정하여 3책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상자에 넣어 둘 정도지만 한가할 때 이리저리 살펴면서 옛 것을 고구하는 자료로서 며칠 뒤 서로 마주하였을 때 한 번의 웃음거리로 삼을 만합니다. 철(미상)의 수법은 참으로 드물게 보는 특이한 것이라 이를 만합니다. 원서를 이에 부칩니다.(吳○圖傳贊, 僅鈔一百六十人, 以董廣川爲首, 使石秋摹繪其像, 小傳則弟以老手自爲寫, 定裝成三冊, 只堪巾衍, 繙閱考古之資, 日後相對, 當一笑, 而鐵之手法, 眞可謂罕觀異哉. 原書茲付.)

위 6번의 대목을 통해 권돈인이 淸 顧沅이 편찬한『吳郡名賢圖傳贊』을 모사하는 중간에 김정희에게 일부를 책으로 엮어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권돈인은 이미 160인(총 540편임)을 초록하고 董其昌을 첫머리로 삼고서 石秋²⁴⁾로 하여금 그 초상을 摹繪하게 하고 小傳은 자신이 직접 써서 3책을 만들어 상자에 넣어 김정희에게 보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답장이 바로 김정희의 30번째 편지인바, 김정희는 이 편지에서 “象贊函은 삼가 수령하였는데, 석추의 摸筆의 세밀한 것이 石篆과 재능을 겨룰 만합니다. 모든 사물이 그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원만하게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라 하였다.

한편, 권돈인은 김정희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김정희의 저술에 대한 언급도 남기고 있다.

【이완 10번】매일 玄老(순조 때의 문신으로 벼슬은 도승지에 이르렀고, 글씨를 잘 썼던 曹錫元의 자)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우씨주역』(『周易虞義』를 이룸)을 보고 있는데, 몇 장도 보지 않아서 눈을 가리고 보는 문서 꼴이니, 또한 어떻겠습니까? 다만 그대에게 찾아가 이치를 물어볼 길이 없어 한스럽습니다. 二林居士(호가 二林居인 청의 彭紹昇)의 『古愚』두 책은 겨우 樊上에서 찾아 왔는데, 이제 부처 보냅니다. 『고우』는 일찍이 한 번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바빠서

24) 茅岩文庫의 <阮髯舍璧>을 해제한 글에 의하면, 趙熙龍의 호 중 하나가 石懸인데 조희룡이 스승인 秋史를 존경하여 懸을 秋로 바꾸어 넣어 석추라는 아호를 사용한 듯하다고 하였다.

볼 겨를이 없어 보낼 뿐입니다. 『品泉帖』은 순식간에 벌써 보았는데, 이것은 남 겨두어 진귀한 감상거리로 삼을 수 있겠지요?(日與玄老對榻, 觀虞氏易義, 數板不過, 遮眼文書, 聊復爾耶? 只恨無由叩責於吾兄. 二林居士古愚二書, 纔自樊上檢來, 茲寄呈, 而古愚曾未一閱, 今忙不暇面目, 而送之耳. 品泉帖小劫已過, 此可以留作珍賞耶?)

위 대목과 관련한 내용이 보이는 김정희의 35번째 편지는 위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보인다. 김정희는 그 편지에서 『주역우의』를 현로가 계속해서 참여하여 듣고 있는지 묻고, 또 팽소승의 글을 비로소 열람해 보니 그가 양명학파의 무리임을 알겠다고 하였다. 한편, 권돈인이 위에서 언급한 『품천첩』은 또 바로 김정희의 21번째 편지에 보이는 구절 “品泉一紙에 대해서는 또한 감히 우러러 합하의 鑑定을 받아서 산중의 故事에 대비하겠다”라는 말을 통해, 권돈인의 이 편지가 이번에는 김정희의 21번째 편지에 대한 답장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아마도 『품천첩』은 샘물의 맛에 대해 여러 책에서 골라 적은 책으로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김정희의 저술을 가장 먼저 읽고 평가해 준 사람이 바로 권돈인이라는 사실이다.

4. 척독소품으로서의 『이완척사』의 특징

17, 18세기에는 문인들 사이에서 전대의 서신과 매우 다른 양상의 척독이 성행하였다. 척독의 작가들은 이지적, 교훈적, 관념적인 의론성의 서신과 구별하고, 또 실용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서신과도 구별하여, 서정성과 심미성을 추구하는 문예적 성격의 짧고 간결한 척독 문체를 추구하였다. 일정한 격식이나 관례적 어법에 매이지 않고,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밀한 상대에게 일상의 淺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아내는 간소한 척독은 조선후기 소품문의 대표적인 문체였다.²⁵⁾ 『이완척사』에 수록된 13편의 편지는 그러한 앞 시대의 척독을 계승하면서 권돈인의 문학적 개성을 살린

25) 줄고, 『조선후기 척독문학의 양상 - 申靖夏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2집, 돈암어문학회, 2009.

글쓰기이다. 3살 연상의 김정희가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서신의 격식(호칭, 안부, 공손한 어법 등)을 상대적으로 잘 갖춘 것과 달리, 권돈인의 편지는 척독의 성격이 뚜렷하다.

4.1. 서두의 특징

먼저, 이들 13편의 편지는 서두에서 척독의 특징이 바로 드러나 있다. 다음에 편지들의 서두 일부를 들어 보인다.

【이완 2번】밤에 급성 癰亂(급성 위장병)을 겪느라 정신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鳳鎮(김정희 집의 하인 이름)이 와서 말하기를 막 예산을 향한다 하니, 어찌 저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편지를 전할 심부름꾼이 바로 있어 이에 어쩔 수 없이 가래를 이겨내며 몇 자 적습니다.(夜經急癰, 神精斷續, 鳳鎮來言, 方向禮山, 到彼當耶? 有貴紀端走, 茲不得不力痰草數字耳.)

【이완 3번】늦봄 이후로 소식이 끊어져 아득히 접할 길이 없으니,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이라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건만 이 일이 어찌 이리도 어려운 것입니까? 山家에 일이 많아 하잘것없이 겨울이 없고, 긴 여름날의 뜨거운 더위는 또 전에 없던 더위라, 마침내 그럭저럭 지내느라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운 곳이 멀지 않으니 어찌 이런 정황을 수고롭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暮春以後, 魚浸雁斷, 邈然若無梯接, 數舍之邇, 一力之走, 是有何甚難, 而山家多事, 碌碌無暇, 長夏大熱, 亦太無前, 遂乃因循, 阻至於此矣. 所思不遠, 安得不勞情況?)

【이완 7번】붉은 숲과 푸른 계곡이 더욱 고와서 마치 그대의 편지를 부여잡고 그대의 가슴속을 대하는 것 같은데, 오직 잠을 깨면 흥치만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요즈음 존체는 편안하신지요?(林紅礪綠, 更益嬋娟, 如攀警咳, 而接襟韻, 只有寤言興懷而已. 日來台體佳否?)

【이완 10번】헤어진 뒤 시간이 어느덧 흘러 또 한 해가 다 가려 합니다. 언 매화 서너 그루는 흰 꽃이 모두 떨어졌고 창 아래 수선화가 제법 활짝 꽃을 피우더니 지금은 다만 즐기 하나에 꽃 두 송이만 남아 미인의 향초처럼 고요히 사람을 마주하고 있지요.(別後年光, 冉冉且盡, 凍梅三數樹, 香雪皆殘. 窓下水仙, 頗盛作花, 今只一幹二花, 寂寂對人, 美人香草.)

척독의 서두는 일반적이 서신과 달리 상대방을 격식에 맞게 부르고 안부

를 묻고 하는 등의 투식을 생략하고 바로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예시한 다섯 편의 서두는 모두 그러한 척독 서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번은 간밤에 급성 위장병을 앓느라 혼절할 지경인 와중에 김정희의 아내의 상여가 고향 예산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김정희의 하인 봉진에게서 듣고서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된 사연부터 바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권돈인이 김정희에게 쓴 편지는 특별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척독으로, 두 사람의 격의 없는 친밀한 교유를 반영하고 있다.

또, 척독의 서두는 매우 서정적인 풍경 묘사로 발신자의 상황과 정서를 운치 있게 전달하는 특징이 있는데, 7번과 10번이 그러한 예이다. 7번은 가을이 온 풍경을 ‘林紅靄綠’ 단 네 글자에 함축해 놓고, 더욱 아름다워진 가을 풍경이 마치 벗의 편지를 읽으며 벗과 심금을 나누는 것 같다가 깨고 나면 흥치만 남아 있을 뿐이라 하여 벗에 대한 그리움을 여운으로 남겼다. 10번은 또 한 해가 저물려 하는 때의 정경을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흰 매화꽃이 어느새 지고 창가에 활짝 핀 수선화도 시들어버려 이제 는 즐기 하나에 꽃 두 송이만 남은 수선화를 벗인 양 보고 있는 자신을 묘사하였다. 풍경의 묘사 속에 서정을 담은 척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4.2. 일상적 언어의 구사와 생활정경

척독은 친밀한 상대에게 일상의 淺近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자유롭게 담기 때문에 문체에서도 일상의 언어를 자주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 『이완척사』의 경우, 자신의 생활과 심경을 구체적으로 형용하기 위해 일상의 언어를 편하게 구사한 경우가 많다. 세 개의 예문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완 2번】어느덧 또 일 년이 지났습니다. 연전에 黃山(근 金迢根)의 大祥에서 곡을 하였는데 퀘연도 이미 영원히 철수하였지요. 한 사람은 바다 밖에 이별해 있고, 한 사람은 九泉으로 떠나보내고서 그저 멍하니 4년을 보냈습니다. 완악한 이 세월에 무릇 철석같은 간장을 지녔다 해도 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알지 못하겠군요. 시월 이후로 건강은 어떤지요? 상사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 몸 상함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을 잘 보호하길 바랍니다. 가려워 굵어대는

것은 전에 없던 증세로, 필시 습한 瘴氣가 몸 밖을 녹이고 피가 안에서 말라 이
런 증세가 생긴 것이니, 수분을 보충하는 藥劑를 복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으니
절대로 몸을 차갑게 해주는 약을 들면 안 됩니다.(居然又過一歲, 歲前哭黃山大
祥, 筵几已永撤矣. 一別海外, 一送泉下, 坐送四年, 光陰若頑然, 凡鐵肝石腸, 此何
人哉? 不審, 十月以來, 體中若何? 自承噩報, 想致損不淺矣. 唯願善自保護, 搔癢
是日所無之症, 必是瘴濕外燥, 血分內燥, 生此症也. 莫如服潤補之劑, 切勿投涼藥
也.)

【이완 3번】수십 일 동안 문득 이와 같은 불별더위는 태어나 처음 겪어봅니다.
이 아우는 거처하는 곳이 시냇물로 강호의 물을 삼고, 넓은 숲과 깎아지른 절벽
을 좌우에 두고 있어 또한 청량한 세계라 할 만하지만 그래도 밤낮으로 크게 소
리 지르며 발광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대는 산림
과 泉石으로 시원하게 해 줄 만한 것도 없고, 지붕 아래 책상 하나가 큰 집보다
더 심하니 어찌 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병환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혹독한 관리도 미처 갈 수가 없고 오랜 친구도 짐짓 찾지 않으니, 백체가 맑고
편안한지 만사가 길하고 상서로운지 모르겠군요.(數朔炎暑, 便如此, 生 初經歷,
弟則所居, 以礪溪江湖之水, 左右穹林斷壑, 亦可爲清涼世界, 而尚不禁日夜大叫發
狂. 想吾兄, 無山林泉石之可以物爽, 屋底一床甚於大宅, 其何能作活計, 而能不至
有病患耶? 酷吏未及去, 故人姑不來, 不審, 百體清康, 萬事吉羊.)

【이완 10번】겨울이 가니 그래도 몇 자나 쌓이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비바람
불고 서리 안개 내려 기이한 추위가 더욱 심하여 절기와 맞지 않아 이 사람의 병
은 바야흐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래도 보리가 꽤어 크게 일렁여 내년 봄을 더
욱 알 만하니 이에 어찌 잦단 근심을 하겠습니까? 요사이 감축을 느낄 수가 없는데,
심한 기침은 또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중형과 계형(김명희와 김상
희를 이름) 두 분 다 별 탈이 없는지요? 저는 행장을 보낸 뒤로부터 문을 닫고
꽃꽂이 앉아 있자니 단지 마른 나무 같은 중의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서엔 갑자
기 풍증이 도지고 가래도 심해져 음식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하다가 열흘 이상
이나 지나 그 기세가 꺾이더니 요사이 비로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모
진 기침을 하다가 이따금 토하려 하면 장이 뒤틀려 쓰러질 듯하여도 몸을 지탱
할 것이 없습니다. (중략) 臍方을 얻느라 『동의보감』을 찾아보니 부합하는 것이
자못 잡다하였는데, 이 처방이 간편하고 용이하니 또한 몹시 따뜻하게 할 만합
니다. 다만 요즘 士珍의 말을 듣자니 뜸을 봉하고는 사오 일에 한 번 갈아야 한
답니다. 이와 같은 처방을 어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평생 그만둘 수
없는 커다란 번뇌의 일입니다. 하물며 한번 시작하였다가 잠깐 그만두면 그 해

로움이 곧바로 나타난다니 이것이 (이 처방을) 받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처방을 천천히 시행하면 이르건 더디건 간에 어찌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冬去而尙不見數寸雪, 風雨霜霧, 奇寒殊甚, 不宜時令, 人病方熾. 麥騷大動, 明春尤可知, 茲豈細憂? 近日能不感觸, 嗽苦亦無添損. 仲季兩公, 并無別愆惱否? 弟自送文駕, 閉門冗冗, 只如枯木禪. 月初以來, 忽感風成病, 痰滯交劇, 却食却眠, 兼旬委頓, 日間始得少痊, 因之頑嗽, 時時欲嘔, 腸悶側莫可支柱. (중략) 獲濟方, 搜見醫鑑, 而副合者頗雜, 此方簡易, 亦可煖劇矣. 但頃聞士珍言, 凡封臍, 當四五日, 一易云. 若爾何可始? 此一生不可廢之大煩惱事耶? 況一始而暫輟, 則其害立見乎! 所以尙此, 遲之此方, 則適付之遲速, 何見耶?)

2번은 벗 김유근이 세상을 떠났고²⁶⁾, 벗 김정희는 4년이 넘도록 해배되지 못해 두 벗과 모두 헤어진 채 지내는 세월을 ‘光陰若頑然’이라 하였고, 이러한 세월을 견뎌야 하는 자신의 심경을 ‘鐵肝石腸’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모두 일상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 예이다. 또, 김정희가 겪고 있는 가려움증에 대한 처방 역시 바로 옆에서 말하듯이 쓰고 있다. 3번은 수십 일간 불별더위가 계속되자 시원한 산수에 거처하고 있는 자신도 어찌지 못해 ‘大叫發狂’하는데, ‘지붕 아래 책상만이 커다랗게 놓인 [屋底一床甚於大宅]’ 작은 방에서 더위와 싸울 벗을 염려하고 있다. 10번은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가는 절기에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강추위 속에 기침과 풍증, 가래를 앓고 있는 자신의 병증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노쇠한 몸으로 문을 닫아걸고 곳곳이 앉아 책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불교의 용어 ‘枯木禪’이라 이른 것이 흥미롭다. ‘고목선’이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한 자리에 앉아 수행하는 것을 이르기도 하고, 묵묵히 앉아 좌선만 하게 되

26) 김유근은 김조순의 아들로 김조순 사후 안동김문의 대표로 활약하였으나 반외척 세력에 속한 권돈인, 김정희 등과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김정희는 권돈인을 위하여 제화시를 종종 써주었는데, 金迥根이 그린 바위그림 [畫石]에 시를 써주었고, 또 김유근이 그린 墨竹小幀에 제시를 써서 권돈인에게 주었다. 그 시를 보면, 김유근이 부채에 푸른 옥빛 같은 대나무를 그릴 때 권돈인이 그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한다. 또, 신위에 의하면 권돈인이 함경도 안찰사로 나갔을 때 김유근이 <疎林短壑>과 <五株枯木>을 그려서 보내주었는데, 권돈인이 그 그림 곁에 시를 부쳐 쓰고, 돌아온 뒤 이를 본 신위가 다시 그 뒤에 권돈인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써서 돌려주었다 한다. (『警修堂全藁』책23, 『祝聖二藁』乙未五月, 至十二月. <霽齋按北藩時, 黃山以自畫疎林短壑, 五株枯木二圖, 千里寄信, 霽齋皆有詩系之幀側, 歸後出以示余, 余亦追步原韻, 各題其後而還之>)

면 마른 나무 같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참선을 이르기도 한다. 말미에는 뜬을 뜨는 요령을 설명해준 다음, 이 번거로운 뜬을 그만 둘 수 없는 처지를 두고 “한평생 그만둘 수 없는 大煩惱의 일”이라 자조하였다. 이처럼 『이완척사』에는 불교의 용어를 일상의 언어로 구사하기도 하였다.

4.3. 정경의 묘사와 우정의 형상화

척독은 情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서정적 산문에 해당한다. 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감정을 直敘하는 방식이 있고, 경물을 그려냄으로써 정을 드러낼 수도 있다. 권돈인은 한편으로 자신의 정감을 극진하게 직서하는 방식으로 김정희에 대한 우정을 강렬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서정적 정경의 묘사를 통해 은근하게 우정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먼저, 정감을 직서한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이완 2번】밤에 급성 광란을 겪느라 정신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鳳鎮(김정희 집의 하인 이름)이 와서 말하기를 막 예산을 향한다 하니, 어찌 저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편지를 전할 심부름꾼이 바로 있어 이에 어쩔 수 없이 가래를 이겨내며 몇 자 적습니다. 그대에게 아내의 喪事를 전하니, 이것이 또 무슨 일입니까? 섬(제주도를 이룸) 밖의 情理야 이미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운데, 이 훌륭한 轉運使(살림꾼인 아내를 이룸)를 잃고 집안일은 맡길 곳이 없고 一身의 도모는 처량하니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그대에게 이와 같은 窮厄을 더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요? 원망스럽고 비통합니다. 그대는 안으로 학식이 깊이 쌓여 있고 내면이 강하니 진실로 반드시 잘 이겨낼 줄 압니다만, 모두 운명인 것을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천금처럼 몸을 지키고 아껴서 부디 병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夜經急癘, 神精斷續, 鳳鎮來言, 方向禮山, 到彼當耶? 有貴紀耑走, 茲不得不力痰草數字耳. 與閣喪變, 此又何事? 島外情理, 已萬萬難言, 而失此良轉運, 家事之靡托, 身計之淒涼, 將何以爲之? 天之於兄, 若是之脩其窮厄耶? 亦何故也? 冤矣悲哉! 以兄內蘊而內剛, 固知必理遣, 而都是命也. 復何爲哉? 惟保惜千金, 慎勿生病患也.)

위 2번은 유배지에서 예기치 않은 아내의 부고를 접하고 낙망해 있을 김정희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내용이다. 한밤중에 일어난 급성 위장병으로 정

신이 없는 와중에도 봉진 편에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쓴다고 하였다. 서둘러 쓴 글이니 만큼 하고 싶은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직서하였다. 집안 살림을 맡은 아내를 잃었으니 장차 벗의 집안은 어찌 될 것이며, 또 유배가 있는 벗의 일신은 누가 또 돌볼 것인가,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한 나머지 벗에게 이런 궁액을 내린 하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깊은 학식과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벗이 이런 상황을 잘 견디어 부디 병이 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이런 류의 사연은 그 자체가 절실하여 달리 문학적 수사를 필요치 않은 경우로, 진솔한 정감을 있는 그대로 펼쳐내면 그만이었다.

다음으로 척독에 한 편의 樓亭記를 옮겨놓은 듯 씩진하게 정경을 묘사한 예이다.

【이완 3번】거처하는 집은 즉시 겨우 갖추었는데 한 칸 書樓가 있어 대략 樊溪의 규모와 같습니다. 서루의 남쪽에 작은 네모난 연못을 파고 연못 가운데 커다란 바위를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 땅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바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담장을 조금 보수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평평한 언덕이 구불구불이 어져 있고, 밤나무와 소나무 숲이 울창하여 집 뒤에 그늘을 드리울 만합니다. 산 앞에는 채마밭 몇 이랑을 새로 개간하여 채소를 심고, 메밀과 보리를 많이 심어 기르고, 겨울밤에는 만두를 빚어 갓춥니다. 이런 부류의 경제행위는 다만 소일거리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적잖이 힘을 쏟는 일이지요. 요즘 가물어서 온갖 것을 심어도 싹이 날 기미가 없으니,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서루에 올라보면 한 줄기 강물 빛이 위아래로 십 리에 뻗어있고 하얀 모래와 푸른 버드나무, 돛단배 그림자와 뱃노래를 마주하니 참으로 기뻐할 만합니다. 비록 천석의 빼어남이야 번개의 들판만 못하지만 강과 산, 전야의 즐거움은 또한 번개가 지니지 못한 것들이라, 이 또한 넉넉하고도 놀만 합니다. 이 나머지 경관이야 탑상에서 한번 시원하게 대할 길이 없지만, 번거롭게 늘어놓는 것도 꺼리지 않고 애오라지 이를 들러 드려 한가한 중에 한번 웃음거리로 부칩니다. (所處屋子, 卽是苟完, 有一間書樓, 略如樊野之制, 樓南鑿小方池, 池中有巨石, 此則因其地之所已有, 而稍整治牆, 南則平岡迤邐, 栗林松翠叢叢, 可蔭舍後, 山前新墾園田幾頃, 藝以菜蔬, 多種蕎麥以脩. 冬夜鋤頭之具, 此等經濟非直爲消閑, 亦費力不少. 近旱, 百種無生意, 此大悶也. 登樓則一帶江光, 上下十里, 明沙翠柳, 帆影權唱, 對之, 亦堪怡暢, 泉石之勝, 雖遜於樊野, 湖山田野之樂, 卽亦樊之所未有也. 此亦足以優哉遊哉? 了此餘景, 無

由對榻一暢, 不憚煩蔓, 聊此仰聞以供閑中一笑.)

위 3번의 인용문은 앞의 ‘4.2. 일상의 언어 구사와 생활정경’에서 예문으로 든 대목에 이어지는 대목이다. 자신이 거처하는 새 서루의 규모는 번계의 별서와 비슷하지만, 번계의 별서와 달리 서루 주변에 園庭과 園圃를 제법 널찍하게 갖춘 별서임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서루 남쪽의 언뫼, 새로 보수한 담장, 남쪽 언덕과 집 뒤의 밤나무와 소나무 숲, 그 산 앞의 채마밭을 차례로 묘사, 서술하고, 이어서 서루에 올라 바라본 광경으로 심리에 뻗어 있는 강물과 그 위에 떠 있는 돛단배들, 강가의 하얀 모래밭, 강가에 늘어선 푸른 버드나무를 차례로 묘사 서술하였다. 권돈인이 이렇게 자세하게 퇴촌에 새로 마련한 서루의 정경을 묘사, 서술한 것은 이 편지를 통해 김정희가 눈에 선하게 이 별서를 그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후기 척독의 작가들은 이와 같이 편지 안에 한 편의 누정기나 遊記에 해당하는 글을 써서 누정기나 유기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퇴촌의 별서에서 에타게 벗의 소식을 기다리는 심경을 직서와 정경 묘사를 교차해 구성한 예문이다.

【이완 9번】강마에 봄이 오고 또 수십 일이 지났건만 인편이 끊겨 소식이 아득해 그저 우러러 바라보기만 하니 그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설날 이후로 바람 불고 눈 내리지 않는 날이 없어 극심한 추위가 한겨울보다 심하였습니다. 요즘 비록 점점 누그러지고 있으나 따사한 날씨는 아직도 머니, 모르겠군요. 들판 집이 산속의 집보다 오히려 나은지. 삼가 문노니 정월 초하루를 맞아 존재가 편안하신지요? 陰인 小가 가고 陽인 大가 오고『주역』泰卦의 卦辭로, 길하고 형통할 象임, 하늘과 사람이 교감하니, 쌓인 것이 발하여 경사로운 운수가 돌아오고 길하고 상서로운 좋은 일들이 마치 물이 동으로 흐르듯 생길 것을 그저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없이 우러러 축원할 뿐입니다. 중공과 계공은 또한 병환이 없는지요? 저는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느껴움과 視蔭榻日²⁷⁾하는 고충을 봄이라 더욱 건디

27) 춘추 시대 쫓나라 卿인 趙孟이 황혼 빛을 바라보면서 “해도 하루 밤낮을 계속하지 못하는 데 누가 5년을 기약한다.” 하였는가?” 하였다. 그러자 后子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조맹이 곧 죽을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세월을 하는 일 없이 보내면서 날을 탐하고 있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세월을 하는 일 없이 보내면서 날짜 지나가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기 어려운데 다만 실 같은 모진 목숨이 새해가 된 뒤로 근심과 병이 잇달아 생겨
무수히 번뇌하고 무수히 수작하여도 또한 한 조각도 편안하고 한가로울 때가 없
으니, 苦海의 緣業이 어찌 이리 지리합니까? 밤낮으로 소나무 발을 마주하고 말
없이 바라볼 뿐입니다.(江春已發, 又過幾旬, 而鱗羽阻截, 聲塵渺漠, 願言詹望, 悵
如之何? 自元朝以來, 無日不風雪, 殊寒又甚於大冬, 邇雖稍弛, 暄和則尚邈然, 未
知野外猶勝於山居耶? 謹問履茲三陽, 台體佳否? 小往大來, 天人交感, 積累之發,
慶運回幹, 吉羊善事, 如水注東, 翹竚頂祝, 心心無量, 仲季兩公, 亦無病患? 弟徂年
之感, 視蔭之苦, 春益難堪, 只恨縷頑, 年新之後, 憂病相仍, 無數熏惱, 無數酬接,
又少一片安閑時, 苦海緣業, 若是支離耶? 日夜與松喬相對, 脉脉耳.)

설날 이후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점차 봄기운으로 누그러져 가는 계
절의 변화를 묘사하면서, 이와 함께 벗의 인생도 자연의 순리처럼 길하고
상서로운 상태로 회복되기를 축원하였다. 이어서 새 봄과 대조되는 자신의
생로병사의 인생길을 지리한 ‘고해연업’이라 하소연한 뒤 밤낮 없이 멍하니
술술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묘사하여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심정을 여운
으로 남겼다.

5. 결론

본고는 일본의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라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이완척사』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고구한 논문이다. 오랫동안 김정희와 권
돈인의 척독을 함께 필사해 놓은 자료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아, 권돈
인이 김정희에게 보낸 척독을 필사해 놓은 책임을 밝혔다. 수록되어 있는
13편을 김정희가 쓴 편지들과 함께 일일이 검토하여 권돈인과 김정희 두
사람의 교류 양상을 보다 풍성하게 밝혔다. 또한 권돈인의 척독이 17, 18세
기에 성행한 소품체 척독의 문체를 계승하여 문예적 개성을 발휘한 면모를
부각해 보았다.

그 결과, 서울 번동의 옥적산방과 제주 유배지 사이를 오고간 편지들, 그
리고 퇴촌의 별서와 과천 등을 오고간 편지들을 통해 권돈인과 김정희가
나눈 우정의 양상을 다채롭게 읽어낼 수 있었고, 더불어 두 사람이 공유하

며 교감을 나누는 금석 고증의 학적 경향과 서화의 감상, 비평의 경향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 한편, 『이완척사』는 척독문학으로의 문예적 가치도 높았다. 간결한 묘사와 서정적 진술, 일상의 언어 구사를 통해 권돈인의 일상생활을 푼진하게 담아내었을 뿐 아니라, 벗 김정희를 향한 변치 않는 우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내었다.

참고문헌

- 權敦仁, 『彝阮尺辭』, 일본 東洋文庫 소장.
- 김정희, 『국역 완당전집』, 고전번역원.
- 申 緯, 『警修堂全藁』, 한국문집총간, 고전번역원.
- 이유원, 『국역 임하필기』, 고전번역원.
- 趙斗淳, 『心庵遺稿』, 한국문집총간, 고전번역원.
- 趙寅永, 『雲石遺稿』, 한국문집총간, 고전번역원.
-
- 안휘준, 『한국회화사(韓國繪畫史)』, 일지사, 1980.
- 이동주, 『우리나라의 옛그림』, 박영사, 1975.
-
- 강혜선, 「조선후기 척독문학의 양상 - 申靖夏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22집, 돈암어문학회, 2009, 173~200면.
- 권혁룡, 「彝齋 權敦仁의 作品 研究」,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2010.
- 김명숙, 「彝齋 權敦仁(1783-1859)의 정치활동과 정치론」, 『韓國思想과 文化』 제3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161~193면.

A Study on Kwon Donin's collected letters "Eywancheuksa"

Kang, Hye-sun

Kwon Donin was a important political bureaucrat and he was a famous calligrapher and painter of the 19th century. Actually, Kwon Donin left lots of posthumous works such as "Sehando" and most of them have still remained in good conditions. But it is regretful that 27 volumes of Yijae Collection were destroyed. As a result we have not read his literary works. The volume "Eywancheuksa", which collects his 13 letters is so important that it deserves special emphasis on his noticeable writings.

I illuminated 13 letters of "Eywancheuksa" in two respects. First, I illuminated a friendship between Kwon Donin and Kim Jeonghee through the letters. They had a closer friendship with each other in their lives. They showed their respect and sympathy to each other and shared the academic views by being interested in such contemporary and dominant art and science as Gojeung Scholarship (the study of ancient documents) and Geumseok Scholarship (epigraphy). Second, I illuminated an aspect of lyrical letters named Chuck-Dock. Kwon Donin sought for the emotional writing and vignette-style of writing in his letters.

keywords: Kwon Donin, Kim Jeonghee, "Eywancheuksa", friendship, lyrical letter named Chuck-Dock

접수일자: 2015. 3. 31. 심사기간: 2015. 3. 31.~2015. 5. 10. 게재결정: 2015. 5. 10.
